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0일 목요일 음 7월 8일 (조금)

기상정보

27-32℃
파고 0.5-1.0m
26-30℃
파고 0.5-1.5m
26-31℃
파고 0.5-1.5m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0-32℃로 예상된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내릴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 주 60%

70% 성 산 60%

60% 고 산 60%

6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26/33℃

모레 ☀ 구름많음 26/32℃

호리고 비

해돋이 05:59
해짐 19:15
물때 만조 02:20
18:00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달돋이 13:30
달짐 23:21
간조 09:53
23:21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K-방산' 한화, 미국 육군 뚫었다

K9 자주포 첫 수출

한화가 국산 무기체계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미 육군은 18일(현지시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와 '기동 전술포' (MTC) 프로그램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한화의 K9 차륜형 자주포가 단독 선정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6문을 공급하며 추가 12문을 발주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계약 금액은 약 1417억원이며 향후 양산 규모는 약 500문, 사업비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K9 차륜형 자주포 (K9M). 연합뉴스

이번 수주는 방위사업청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 초기부터 현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한 민관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한화가 2017년 미국 방산전시회에 참여한 이후 9년 만의 결실이기도 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엘라베마주 공장을 임차하는 등 현지 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K-방산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세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강연실

제주연구원 자치문화연구부 부연구위원

경영학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업과 행정 모두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성과를 관리한다. 그러나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영역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경영에서 성과는 단순히 '일의 양'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표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했는지, 그 결과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목표 설정과 자원

투입을 넘어 체감으로: 지방행정 성과관리의 본질

변화를 제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가 중요해진다. 주어진 사업을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면, 그 사업이 지역에 진정 필요한 일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것은 효과성이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수행했다라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라 보기 어렵다.

여기에 지방행정은 강력한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이미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해 정책 결과를 점검하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핵심은 평가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가에 있다. 성과가 미흡했다면 원인을 점검해 사업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원을 재배분하거나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과 예산 결정으로 이어질 때 성과관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가 된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환류 체계야말로 성과관리의 본질이다. 결과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선택에 반영하는 유기적 과정이 이어져야 하며, 책임행정의 실효성 역시 이 순환 체계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성과를 묻는 질문도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넘어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아가 '그 결과로 무엇을 바꾸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좋은 행정은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역량 있는 조직이다.

열린마당

제주를 정확히 보는 힘: '메타인지'로 여는 미래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 아닌 생명 지키는 의무



현치훈
국제평화재단 팀장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1999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역량이 부족할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높은 역량을 지닌 이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발표했다. 이를 극복하는 열쇠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에 있다. 이 원리는 제주와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제주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자세는 '제주가 최고'라는 자기확신도, '변방의 한계'라는 자기비하도 아니다.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되 부족한 점은 인정하는 자기객관화가 요구된다.

제주는 고유의 자원을 정책과 제도로 전환해 미래 가치를 창출해왔다. 2005년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켰고, '제주삼다수'는 지하수에 공공적 관리체계와 브랜드 전략을 결합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 없는 섬(CFI 2030)'을 시작으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2035 탄소중립까지 혁신을 넓혀왔다.

물론 평화 거버넌스와 제2·제3의 공공 자산 모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문제와 주민 수용성 등 과제도 남아 있다. 제주의 미래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성과는 계승하되 구조적 한계는 혁신하는 자기객관화가 안착할 때 제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된다.



고현빈
제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교

화재 등 신속한 출동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는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최성기에 도달해 피해가 급격히 커진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영상이 알려지며 관심도 높아졌지만, 막상 긴급차량을 마주하면 양보 요령을 몰라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추고, 교차

로나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편도 1차선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양보하거나 정지하고, 편도 2차선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2차선로로 양보한다. 편도 3차선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중앙인 2차선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1차선로와 3차선로로 각각 양보한다.

20일 오후 2시에는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각 119센터에서는 주요 도로를 실제 주행하며 훈련을 진행한다.

긴급차량 접근 시 행동 요령을 평소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모세의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될 것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소방차의 골든타임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임을 명심하자.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와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라플라워

City Flower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 농장

☎ 746-0014, H-P 010-3693-5563

제주시 신광로 8길 3(연동)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